



제목	황금의 제국 페르시아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
발행일	2008. 4. 18.
저자	국립중앙박물관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267
ISBN 또는 ISSN	978-8996049999

내용 요약

이 책은 2008년 4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황금의 제국 페르시아’ 기획특별전 도록으로서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한번도 소개되지 않은 페르시아와 이란의 예술문화를 담고 있다.

도록에 수록된 유물들은 이란국립박물관, 페르세폴리스박물관 등 이란의 대표적 인 다섯 개 국립박물관의 소장품으로 구성되었다. 시기적으로는 이란고원에서 농경이 발달하면서 최초의 도시들이 탄생하는 기원전 5천년 경에서 사산왕조가 멸망하는 7세기에 이르는 기간을 아우르며, 유물들은 문명의 초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채색토기에서 사산왕조의 금속공예품에 이르는 204점의 이란문화재와 경주 적석목곽분에서 출토된 유리잔, 황금보검 등 실크로드를 통해 페르시아지역과 교류된 18여점의 한국 문화재로 구성된다. 특히 눈에 띄는 유물은 이란국립박물관 최고의 소장품이자 이란을 대표하는 국보인 금제뿔잔이 포함된 하마단 황금보물과 정교한 세공이 눈길을 사로잡는 의식용 금제그릇들이 주목된다. 그 외에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신분과 증명을 상징하는 다채로운 인장들과 아케메네스왕조에서부터 사산왕조까지 만들어진 금화와 은화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루리스탄 청동기로 대표되는 금속유물, 메소포타미아지역의 국가와 긴장과 교류를 통해 성장한 엘람과 메디아왕국을 살펴본다. 이후 페르시아 세계 제국을 세운 아케메네스왕조에 이어서 파르티아, 사산왕조페르시아의 유적과 유물을 소개하고 있다.